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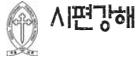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낙심한 자를 위한 치료

(시편 42:1-11)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내게 약속 하신 바를 버리시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대신 다가올 미래에 주실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42편-72편은 시편 2권으로 분류됩니다. 시편 1권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272회, '엘로힘'이 15회가 나오는 반면, 2권에는 '엘로힘'이 164회, '여호와'가 30회 나옵니다. 1권은 거의가 다윗의 시(37편)이고, 2권은 다윗의 시가 18편, 고라 자손의 시가 7편, 그리고 솔로몬과 아삽의 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로 되어 있는 시편 42, 43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다윗의 시와 유사하므로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던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로 읽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을 가장 가깝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와 사촌 간으로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모세를 시기하여 적대시 하다가 마침내 250명의 불평분자들을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부끄럽게 죽었습니다(민 16장).

그러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성막의 수직 책임자로, 특별히 후일에는 다윗의 악사로, 성전 찬양대 지휘자로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선조보다 나은 후손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1. 영적으로 낙심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시온산 성전예배와 멀리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느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갈급했는지 자신을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으로 비유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6절).

미살 산은 낮은 언덕으로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살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곳이 가정이든 고독한 곳이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실직, 실패, 은퇴, 이혼, 질병이 시달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있는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심한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3, 10절). 고대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조롱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적당히 회상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

복한 과거를 회상하므로 현재의 고통을 더 가중합니다. 또 폭풍같이 밀려오는 고통 앞에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체험할 수 없고 가혹한 시련이 계속 될 때, 경건치 않은 자·속이는 자·악한 자가 성공하고 나는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원인들은 안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2. 영적 낙심의 지유

세상에는 잘못된 진단도 많지만 잘못된 치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므로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 치료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이므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 하신 바를 버리시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대신 다가올 미래에 주실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3.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케 하소서”(시 43:3).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는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가봇(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의 상태입니다(삼상 4:21).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애니 호크스 여사의 찬송처럼 하나님과 유리된 삶은 어둡고 침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빛이요, 진리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성도는 악이나 근심의 수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성산에 이르러 주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5절).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5).

성도는 낙심 대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7년 1학기 장학금 수여

61명 선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7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이번 장학생들은 각 교육부서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회장 노문환 장로)에서 선발 심의하고 당회가 결의하였다.

우리교회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신앙이 독실하며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교인 중 전국일꾼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1) 성적 우수자 : B(-) 이상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3) 교회 봉사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61명을 선발, 총 506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반드시 오늘 찬양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장학금이 지급된다.

만민에게 전도, 전국일꾼 양성,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한다.

2007년 1학기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 대학생>-27명-

김경태 김은진 박재원 신동빈 오주명 정진환 황나리 김은비 김한상 남미진 이병은 김성신 이인영 정승용 유동인 김수정 장은규 강혜주 Akali Zhimomi 엄지원 구슬희 박승기 안영수 서민애 이한나 이해나 이건우

<브리스길라 대학생>-2명, 신학생-

박혜원 장정남

<송암 장학생>-6명-

박한샘 이영희 박혜진 이지아 정다운 고광석

<일반 디아스포라>-14명-

김철훈 오태봉 권예진 박주는 김경철 박복실 김영복 최명진 문정훈 채정석 최옥선 김정순 조경숙 한정남

<일반 고등학생>-12명-

안충혁 성기방 심 송 신가현 유윤지 정덕희 조인주 차동호 정휘제 서윤영 차주호 임지선

- 서울교회 주관 -

공사 제55기 졸업 · 임관 감사예배

-2월27일(화) 오후 6시30분 청주 공사교회-

공사 제55기 졸업 · 임관 감사예배가 우리교회 주관으로 2월27일(화) 오후 6시30분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에서 거행된다.

이날 우리교회는 이종운 목사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과 격려 그리고 갓 입학한 메추리 생도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한다.

또한 공군기독교인회와 한국 기독교인회, OCU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하한다. 성무교회에 의하면 졸업 및 임관감사예배에는 졸업을 하는 기독교생 100여명, 재학생 포함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교회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는데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한다. 우리교회에서는 호산나 찬양대(대장: 황정임 권사)와 교인들이 당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15차 KIMCHI 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 발족

5월 28일(월) - 6월 6일(수)까지 10일간

5월28일(월)부터 6월6일(수)까지 10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제 15차 KIMCHI 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1세기 세계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갱신 운동을 통한 선교 비전의

확대와 효율적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복음확장을 위한 국제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제15차 김치 신학세미나는 터키에 소재하는 교회지도자 30명을 초청하여 '21 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주제로 영적 갱신운동의 초석을 놓게 된다.

-운영 조직-

- 지도:이규정 목사
- 위원장:이영기 장로
- 자문위원:당회원

분과	부장	실행위원
기획/진행	김영준장로	김상태 김시환 김창남 김형상 민영기 박승준 양정실 오광환 은기장 이상준? 전광환 최근보
의전	정병무장로	김해중 박명철1 백승갑 송인수 원용규 이강인 이상철 이영숙1 이종창 이현주 전원순 정동학 정동호 조동완 최규초 최금숙
안내	신용식장로	권소희 김순영 김진환 나연신 박순복 박정임 안홍희 이상은 장 덕 조미진 채경희 최중희 홍창배
시설	조정식장로	김관홍 김금준 김현관 오유식 오치열 임옥곤 최광성
음향	오정수장로	강윤숙 박성희3 조철기 윤요셉 진교남
재정	노송성장로	김복승 문주현 박찬성 송인권 양춘경 장인원 정국주 홍승전
홍보	박두호장로	김규태 김민철 신동기 정치은 허 숙
봉사	이관규장로	곽미숙 김명식 김숙자 김영식 김윤숙 김은희1 김해관 박재숙 박형영 안분선 이경혜 이미송1 이영희 정미연 최재철 현승희
의료	박동원집사	김영주3 김한성 나미용 안인호 오종원 이진구 하인선
통역	이갑진장로	김사라 김인수 윤갑숙 정금희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 일천독 통독에 참여한 성도들과 성경통독을 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래 해당자들은 찬양예배 시간에 별도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시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일천독대상>

2월 15일 현재 13명 완료

- 필사: 김중자 권사(14교구)
- 통독: 채복순 성도(2교구) 고금란 집사(13교구) 김경철 장로(12교구) 박두영 장로(1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최지혜 성도(2교구)

<성경통독>

- 컴퓨터 필사 1회: 신용건 성도(13교구)
- 2독: 정울순 집사(2교구) 송옥혜 권사(9교구) 이점숙 권사(10교구)
- 1독: (1교구)김남중 성도 (2교구) 최요섭 성도 (3교구)배재송 집사 임봉도 권사 (5교구) 서영애 권사 (8교구)김인식 권사 김영일 집사 박정옥 집사 (11교구)전배호 권사 (13교구)김정미 집사 송인숙 집사 임광호 집사 최영희 성도 (14교구) 박노은 학생

중등부 겨울수련회

2월 22일(목) - 24(토) 진위고등학교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22일(목)-24일(토)까지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주제는 '꿈꾸는 자가 오도다'로 이종운 목사와 윤영국 목사가 강사로 선다.

22기 단기 전도학교 수료자

이번 주는 20일(화) 부터 24일(토)까지

백만인 전도운동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교인 단기 전도학교 수료과정을 지난 주에 마친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경태 김광선 김명희 김미성 김상옥 김세림 김세원 김숙자 김영진 김화순 김희순 나미용 나상민 박명철 박진희 박천희 박혜옥 서수녀 성준경 송미영 송민정 오정수 원명희 윤미란 윤성남 이기춘 이상호 이성현 이소명 이영희 이은옥 이은자 이종숙 이학주 장인숙 전용천 정동호 정울순 진경자 천기성 한문영 한선현 허인숙 허주란 홍명옥 황익준 총 46명

비전2020 운동 후원자 명단

강진환(양정실) 김명옥 김승록(전미경) 김재진 김점숙 김진희 김혜연 김희정 나기태 남영주 문복순 박계순 박금성(이윤희) 박기남(강영순) 박상운 박찬성 백운 서명조(김효순) 소선자 손명근 심상희 우지원 유선희 윤태옥 이건모 이경혜(최현식) 이덕빈 이동수 이영조 이영희 이점숙 이준수 정기동(김배호) 정희진 조동완 조정옥 차영도 천기성(박천희) 최성욱 최영진 최정인 태원진(임인선) 허인숙 홍승자 홍창배 홍해란 황현진(박수옥)

2007년 유년부 자모회 조직

유년부(부장:최광성 집사)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모회가 조직되어 회장: 오가연 집사, 부회장: 박은정 집사, 총무: 윤정희 집사가 수고하게 된다.

천국시민양성 - 사랑부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김세원 (사랑부 교사)

사랑의 하나님,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께 올리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번 성경학교에 허락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십계명이라는 주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연 사랑부 지체들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 십계명을 은혜롭게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부 교사들은 주일이면 수고한다는 인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동조차 불편한 몸, 어눌한 언행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동하는 지체들, 자기 몫의 퍼즐 조각을 손에 꼭 쥐고 선생님의 품에 안기거나 부축을

사랑... 사랑뿐이죠



받고 앞으로 나아오던 지체들은 알 수 있을까요? 그 한 조각이 제 자리에 없으면 온전한 십계명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기쁘게 섬겨주셨던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장애'가 오히려 가족을 하나 되게 하여 헌신과 인내,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며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받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저희를 장애우의 부모와 교사로 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천국 시민의 책임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저희 사랑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귀한 영혼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 온 마음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다. 주님의 사랑은 더더욱 느껴지지 않았고, 세상과 입 맞추고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무엇인가 응어리져 자리 잡고서 마치 무언가를 잘못 먹어서 체한 것처럼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가겠지 라는 막연한 마음만 가진 채로 그렇게 교회를 아무생각 없이 오가기만 하던 중 수련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쯤인가 수련회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라는 광고를 듣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선뜻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수련회 첫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첫 날 아침 교회로 향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들뜨고 기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멈추지 않을 뿐더러 더욱 커져 갔습니다. 어느덧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수련회 첫 밤은 들뜬 마음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은 어린 아이처럼 들뜬 모습으로 행동하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 지체들이 모두 사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성국 (대학부)

랑스러웠고 순간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눈가가 찡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눈을 의식하게 될까봐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슴 속이 불타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부터 눈물이 온 핏줄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며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눈물 콧물 땀이 뒤섞여 얼굴과 팔 가슴에 뿔뿔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

천국시민양성 - 에바다부 겨울수련회 초대

빛의 사자들!

임규현목사 (에바다부 지도)



추운 겨울도 지나고 얼었던 대지도 녹아내리며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부르는 이때 에바다부 수련회가 2월28일-3월1일까지 가평 대성리 뉴플러캠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속에서 에바다

부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체험하며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농인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바다부 수련회는 "빛의 사자들"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음적 신앙의 일꾼이 되어 농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면서 에바다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련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하던 기도가 입을 통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신기함까지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중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손이 저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무척이나 따뜻했고 주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욱 흐느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또 다시 주님의 품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죄인인데 도대체 어디가 좋으셔서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건가요? 나는 정말 철부지였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감사함과 평온함으로 지난 날의 상처와 응어리진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대학부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수련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만민에게 전도 - 캄보디아 이재울선교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캄보디아 어린이 영어 성경공부 교실을 오픈하였습니다. 1. 15(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학교에 갑니다. 따라서 부대의 어린이 교실도 이를 감안하여 두 차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세 미만의 유치부(1개 반)와 10세 이상의 초등부(2개 반)로 편성하여 스태프 3명이 3시간동안 영어/크메르어 찬양과 영어수업,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우동부대 사역 시작되다! 어린이 영어성경공부 교실 오픈

2006년 10월부터 캄 폰스프의 기갑사령부에서 어린이 교실을 개설하여 80-90명의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동부대에도 어린이교실을 개설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부대에서는 군인반(영어반, 컴퓨터반)도 같이 개설하여 시작해 주기를 원했지만 우선 어린이 교실을 시작한 후 군인반은 2월에 준비하여 3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만에 다시 어린이들을 모아 지난 캠프때 가르쳤던 찬양을 불렀는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부대안에 군인들 보다 먼저 어린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었구나 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어른예배로 그리고 나아가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이 어린이사역을 진행하며 군인영어/성경

공부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작년 영어캠프가 끝나고 나서 부대 안에 기도모임 그룹이 생겨 매주 목요일과 주일 저녁에 어른 15명(군인6명, 부인9명)과 어린이 20여명이 모입니다. 이 모임은 미국의 군선교단체인 Cadence의 후원을 받고 있는 Sareth목사가 결성해 놓은 것으로 현재는 부대 인근에 있는 민간목사님이 들어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그룹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느끼며 2년전 캄보디아 영어캠프를 시작하면서 이 부대 안에 "제1호 군인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비전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저희 팀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주일예배와 이 기도모임그룹이 하나가 되어 부대 안에서 공식적인 주일 어른예배와 어린이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집중적인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군 선교회에 큰 획을 긋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캄보디아 정부기관, 특히 군 및 경찰부대 안에서 공식예배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장차 교회설립의 기틀이 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군부대에 군목제도가 도입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재울 선교사 드림-

푸른 초장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Q: 추도예배는 몇 년 동안 지내는 게 바람직한가요?

A: 추도식은 고인을 추모하며 그 유력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도식을 통해 머지않은 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임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추도예배 시에는 교구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가족끼리 모여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의 추도예배 역시 2년 이상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도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화 되면 마치 불신자들의 제사와도 같은 개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수) 총회표준주석 편집위원회, 22일(목) 군선교연합회 총회에 참가한다.
- 득녀: 임승한 박찬미 성도 가정(1교구)
- 이사: 한명자 집사 박용수 집사(13교구) 은마@8-812 방효철 장로 남상경 집사(13교구) 은마@11-403
- 주간 식당 봉사: 당회원(2.18) 스테반회(2.25)
- 금주의 식사: 김신애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협의회 개최-

서울강남노회여전도회 연합회는 지회장협의회를 개최하오니 전도회회장들의 적극참여를 바랍니다. 2월 22일(목) 오전 10시에 소망교회 선교관 2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07년 섬김위원 요람 판매중 -1층 서점에서-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요람 가격은 5,000 원으로 섬김위원들이 자제히 나와 있다.

찬양예배 특별 순서

이번 주일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김성암 선생(총신대 강사)의 테너 독창과 이호정 선생(장신대 강사)의 피아노 독주가 있다.

2007 단기선교팀 설명회 개최

이스라엘 키부츠로 파송되는 2007 단기선교팀(단장: 노문환 장로)의 설명회가 오늘 2월18일(주일) 오후 3시30분에 101호에서 열린다. 단기선교팀에 지원하는 이들은 3월9일(월) 개강하는 '세계선교대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조상송배와 같은 구습을 버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 하도록
4.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 · 애족 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